

광주·전남 무역수지 3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

3월 수입 전년비 광주 28%·전남 34%↓...수출보다 감소폭 커

자동차·기계류 수출 증가...가전·선박·석유제품은 급감

올해 들어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데 따른 '경기 위축형 흑자'가 계속되면서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3월중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9.2% 감소한 35억9800만달러, 수입은 27.6% 감소한 19억9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감소한 16억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3월 광주·전남 지역 수입은

26.8% 감소했으며 수출은 11.9%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으로는 42억1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3월 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감소한 14억1000만달러, 수입은 6.8% 증가한 4억46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9억6400만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자동차(+13.1%)가 증가했고 반도체(-1.3%)·가전제품(-22.9%)·타이어(-6.4%)·기계류(-8.8%)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4.8%)·철강재(+11.0%)·화학품(+35.7%) 등이 증가했고 기

계류(-13.7%)·고무(-0.5%)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출의 경우 미국(+19.7%)·EU(+1.8%)·중남미(+22.7%) 등이 증가했고 동남아(-12.6%)·중국(-8.1%)은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15.2%)·중국(+12.1%)·EU(+15.3%)가 증가했고 동남아(-12.5%)·일본(-9.9%)은 감소했다.

3월 중 전남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한 21억8800만 달러, 수입은 33.8% 감소한 15억4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4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기계류(+47%)가 증가했고 화학품(-23%)·선박(-25.5%)·철강제품(-17.3%)·석유제품(-42.4%)은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45.5%)·석유제품(-23.9%)·철광(-30.1%)·석탄(-18.5%)·화학품(-12.1%) 등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출의 경우 EU(+25.1%)·일본(+9.9%)이 증가했고 중국(-30.8%)·동남아(-44.1%)·미국(-9.4%)은 감소했다. 수입은 중동(-42%)·EU(-49.6%)·중국(-2.8%)·호주(-30.8%)·동남아(-32.2%) 등이 모두 감소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일부 적자를 보더라도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현재와 같은 흑자기조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광주 본부세관 관계자는 "수출과 수입 모두 위축된 상태에서 흑자만 기록하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내수와 글로벌 경제 모두 침체하면서 수출입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05.83 (-5.53) ↓ 금리 (국고채 3년) 1.47% (-0.03)

↓ 코스닥 699.86 (-1.82) ↓ 환율 (USD) 1135.20원 (-1.10)

“車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조속 추진을”

대한건설협 광주시회 정기총회...결의문 채택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이권수)는 20일 오후 2시 광주호텔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갖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주건설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는 지난해 국비확보를 통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고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 수정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지연되는 등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건설협회는 "광주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컨트론타워로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대통령 임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며 "이 사업의 성공으로 광주가 대한민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건설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수입지출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협회는 올해 사업목표로 ▲건설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지역건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건설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정부위탁사업 적정 수행 및 회원지원 활동 강화 ▲국민친화적 건설문화 정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광통신업체 150만달러 수출계약

고려오토론 등 3곳 필리핀 케이블TV 장비전 참가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16 필리핀 케이블TV 장비전(2016 PCTA Convention)'에 광통신 관련 3개 업체가 참가해 1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려오토론과 글로벌광통신 등 광통신 업체들은 이번 전시회에 공동관을 개설하고 국내 광통신 제품 및 FTTH(Fiber to the home) 솔루션의 우수성 홍보와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을 펼쳤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국내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해 그동안 해외마케팅사업

에 참여한 동남아시아 바이어 16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벌였으며 고려오토론과 글로벌광통신 등이 15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동남아 각 나라들과 신규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어서 실질적인 사업화를 기대한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동남아 시장개척 사업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바탕으로 활발한 해외마케팅지원 전략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자동차부품기업 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이환우)은 광주시 자동차 부품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CEO 및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CEO 대상의 경영혁신 아카데미 과정은 매일 셋째주 화요일 개강으로 5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7회로서 산업교육계감사들로 구성된 특강 포럼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연수비는 무료과정으로 사업주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신청을 희망하시고 자 한 업체는 오는 22일까지 각 과정별로 신청순 40명 이내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으로 하면 된다. 문의 062-250-3024. /김대성기자 bigkim@



삼성 갤럭시 S7 핑크골드 출시. 삼성전자 모델들이 잠실 롯데월드를 아트리움에서 '갤럭시 S7 엣지'와 '갤럭시 S7' 핑크골드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7 핑크골드 출시에 맞춰 미니박스(MEMEBOX)와 함께 메이크업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태양광 발전소 위치도



한전, 日 홋카이도에 해외 첫 태양광 발전 진출

LS산전 등 국내 13개 기업 제휴...25년간 3174억 전력 판매

한국전력공사는 LS산전 등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과 손 잡고 처음으로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한다.

한전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치토세시(千歳市)에서 구자균 LS산전 회장, 조환익 한전 사장, 임병호 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소(28MW급)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일본 신재생전문기업과 공동사업개발협약을 맺은 후 1년에 걸쳐 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태양광 주요 시장인 일본에 진출하게 됐다. 이 사

업은 자금조달부터 건설, 운영까지 한전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총 사업비로 약 113억엔(1130억원)이 투입된다. 2017년 하반기까지 홋카이도 신치토세 국제공항 인근의 33만평 부지에 13만대의 태양광모듈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비 중 9백억원 가량은 KDB 산업은행·우리은행·삼성생명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방식으로 차입한다. PF란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검토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LS산전이 발전소 건설과 운전, 보수를

맡는다.

한전은 발전소 준공 후 25년간 홋카이도 전력회사에 3174억원 수준의 전력을 판매하고 총 64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LS산전을 비롯한 총 13개 국내기업의 기지재를 활용해 505억원 규모의 수출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조환익 사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산업이 각광받는 상황에서 일본의 청정지역인 홋카이도에 공급하는 이 태양광발전사업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해외 태양광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전기공사협-7개 특성화고 MOU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김정호)는 지난 15일 전기과가 있는 7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졸업(예정)생들의 실습과 취업에 관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특성화고는 학생들에게 전기공사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취업시 연계되는 현장실습 모델을 개발하도록 했다. 협회는 지역 회원업체에 홍보하여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특강 실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재학생(졸업생 포함)을 우선 채용하고 채용시 우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구림공고(교장 김정필), 목포공고(교장 장영호), 순천공고(교장 류남규), 여수공고(교장 전용석), 장성실고(교장 양연옥), 전남기과고(교장 김용국), 해남공고(교장 김상호)가 참여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창사 64주년

합리적인 설계, 탄탄한 시공으로 신뢰와 행복이 있는 기업!

토목설계 / 각종 인·허가

(주) 진 성 | 광주시 서구 풍암동 908-5 (2층)
Tel. (062)261-2272

(유) 신성산업개발 | 광주시 서구 시청서편로 12번길 19(치평동)
Tel. (062)373-9891